

창작춤 '동다송' 9·10일 서울 양재동 한전 아츠플센터

차 한잔에서 찾는 마음자리



차를 마시는 과정과 차를 마신 뒤 맑아진 마음자리를 몸짓으로 표현하는 창작춤 '동다송'.

차 한 잔을 마시며 참나를 찾는 다도의 세계를 춤으로 형상화한 '동다송(東茶頌)'이 김용복(金龍福) 무용단에 의해 무대에 오른다.

'동다송'이란 초의 선사(曹師)가 우리나라 차의 우수성과 차에 얽힌 일화 등을 시형식으로 쓴 글이다. 춤 '동다송'은 초의 선사의 '동다송'을 바탕으로, 차를 마시는 과정과 차를 마신 뒤 맑아진 마음자리를 몸짓으로 표현한다.

모두 다섯 마당으로 구성되었는데, 1장에서는 우주의 근원리인 지수화풍(地水火風)을 사천왕으로 표현하고 초의 선사가 보낸 인고의 시간 그리고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표현한다. 2장은 첫잎이 피기 시작하는 경첩에 향기

김용복 무용단
다도의 세계
춤으로 형상화

를 터트리며 도르르 말리는 첫잎의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3장은 첫잎을 뒤는 스님의 모습과 첫잎을 끓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의 순환을 춤으로 표현한다. 4장에는 마른 첫잎이 더운 첫잎을 만나는 모습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그린다.

마지막 장인 5장에서는 차에 대한 사랑과 정화된 마음의 경지를 춤으로 나타낸다. 선적(禪的)인 음악이 주를 이루어 자칫 지루해질 것을 우려해 강

하면서도 부드러운 동작과 현대적인 음악을 가미했다.

공연을 위해 하동에서 직접 차를 따고 달여보았다는 김 씨는 "이번 공연을 보면서 차 한 잔 마시는 것과 같은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작품은 문화관광부 무대예술지원선정작으로, 박희준 씨(향기를 찾는 사람들 대표)가 대본을 쓰고 여연 스님(일지암 주지)이 자문을 맡았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인 무용가 김 씨는 현재 성균관대학교에서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다. 9일 오후 8시, 10일 오후 5시 양재동 한전 아츠플센터(02-386-0547

이은자 기자 eee@buddhaga.com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서거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고등학교 때의 앨범이 눈에 들어왔다. 펼쳐보니 흑백사진들 속에 당시의 추억이 불안게처럼 피어오르는 것이었다. 지난 것은 그림이 마련인가. 졸업반 때의 단체사진을 찾아보니, 한쪽 구석에 그때의 '나'가 친구들 틈에 끼어 수줍은 듯 서 있었다. 그러다 문득, 한참동안이나 '그 소년'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토록 사람의 관심은 오로지 '나'에게만 쏠리게 되어 있는 것일까.

지난 <현대불교> 신문(339호)을 보다가 메모해둔 무비즈니스의 글이 생각났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얻어 인간과 사회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다. (-) 견성(見性)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참나'를 찾는 것입니다. (-) 이것이 불교의 본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상 속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나에서 차를 '참나'에게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성숙 과정인 것 같다.

바른 종교의 가르침도 자기에 대한 본능적인 관심을 작은 나를 위한 기복(祈福)에서 벗어나

보르헤스의 문학세계 (2)

남의 눈에 비친 나의 걸모습 진짜 '나' 일까

르네스스와 나)라는 짧은 에세이에서 아래와 같이 문학적으로 표현했다. 여기서 '보르헤스'는 타인에게 비친 자신의 걸모습을 객관화시켜 부른 것이고, '나'는 이름이 필요 없는 순수하고 자유로운 자신이다. 마치 <도덕경> 1장의 '명가명 비상명(名可名非常名)'을 이름으로 불러진 나는 진짜 나가 아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 같다.

변질한 세상사는 그의 '보르헤스'의 묘인 것 같다. '나'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거리를 걸다가 문득 문득 습관적으로 멈춰 서서 고통스러운 현관 장식이나 아름다운 유리문을 즐겨 바라본다. 보르헤스에 관해서는 우연함을 통해 소식을 듣고, 문인 인명사전에서 그의 이름을 본다. 나는 모래시계, 옛 지도, 18세기 활자재, 어원학, 커피 맛과 스티븐슨(보물섬)의 작가의 소설을 좋아한다. 그도 같은 취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배우에게 주어진 인물의 성격처럼 좀 공허한 것이다. 우리들의 관계가 약간 불편하지만, 적대적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으리라. 나는 살면서 보르헤스 역시 살도록 허용해 주고 있다. (-) 내 생의 나머지 순간들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고, 내 생의 몇몇 순간만이 그의 작품이 되어 세상에 남을 것이다. (-) 나는 나로서가 아니라 보르헤스로 남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게 그의 글은 평소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글이나 즐겨듣는 음악보다 더 낫다. 몇 년 전 나는 그에게서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동네이야기에서 벗어나 시간과 무한을 소재로 장난도 쳐보았다. 하지만 그런 짓들도 모두 보르헤스의 것이 되어 버려서, 난 단 공리나 해박하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내 생은 도망자의 생이었다. 난 이제 모든 것을 땅과 속에 묻었거나, 아니면 그에게 주어버렸다. 우리 둘 중 누가 이 글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

문예평론가

영화 '달리아 놀자' 시사회 다녀와서

영화 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다. 시사회와 관련해 감독과 배우들의 인사가 시작되었다. 물론 입을 맞출 때지만, 잘 훈련된 군인 이상으로 그들은 일사분란했다.

"재미있게 봐 주십시오(감동)."-즐거십시오(배우 박신양). 10명도 넘는 출연진들의 재미있게 봐 달라'는 인사는 계속됐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 영화는 '재미'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영화의 전부일까? 그리고 그것이 이 영화의 다른 모든 문제를 상쇄시킬 만큼일까?

사실 이 영화를 보기 전 두 가지 이유에서 긴장을 했었다. 첫째, 잘 만든 한국 영화 '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고 둘째,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갈등을 빚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둘 다 큰 문제는 없었다. 코믹 영화치고는 영상도 좋았고, 스님 연기도 비교적 좋았다. 종교와 표현의 갈등 문제도 '교묘'히 피해간다. 자, 그렇다면 이제 즐기는 일반 남은 생인가?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자.

역시 예상했던 대로 오프닝 신은 폭력이 난무한다. 나이트 클럽 지하 주차장에서 벌어지는, 조폭들의 패싸움이 이 영화

조폭과 스님들간 불안한 휴먼코믹

종교와 표현의 갈등 교묘히 피해가지만...

의 시작이다.

패싸움에서 밀린 한 무리의 강패(재규(박신양)일당)들은 잘 맞은 조직원 한명을 병원에 밀어넣고 산사로 숨어든다. 그리고 그때부터 강패들과 스님들의 밀고 밀리는 대결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대결이라는 것이 '시후에이션 코믹'이자 '휴먼 코믹'이라는 얘기다.

먼저 시후에이션 다섯. <삼천 배>, <고스름(화투)>, <굴 속에서 오래 버티기>, <369계단> 그리고 <발 빠진 독에 물 붓기>. '따나나 남나'를 놓고 승부를 벌이는 것이다. 결과는 강패들의 승리. 마지막 승부였던 '발 빠진 독' - 화두(화)를 강패들이 타파(타)한 것이다.

여기까지도 큰 문제는 없다. 스님을 '회화(繪畵)'한 점보다는 웃음의 미덕이 더 크고, 강패들의 화두 타파가 스님들을 조롱하는 것으로 읽히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사이의 몇몇 에피소드는 아슬아슬하다. 그 중 하나 강패들이 법당 청소를 하다가 부처님의 국적이 인도나 중국이나

제가 되는 부분은, 재규 일당을 박살내려 온 강패들과 그들보다 한술 더 뜨는 스님들이 벌이는 마지막 폭력 장면이다. 상투적 폭력 장면도 문제지만, 강패의 리에 강패보다 더 충실한 스님들의 폭력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조금 전해진, 배신을 당한 강패들을 폭력으로 돕는 것이 진정한 '휴먼'일까? 그리고 마지막, 강패가 해서 번 돈으로 사 보냈을 것이 분명할 선 물들을 받고 아이처럼 좋아하는 스님들의 모습 또한 '휴먼'일까? '홍행'이라는 주문에 걸린 부처님의 자비가 일금 7000원에 세일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게 하는 대목이다.

오락 영화를 너무 진지하게 본 게 아니냐고 하면 할말 없다. 더 이상은 관객 몫이니까. 9월부터 전국 150개관에서 개봉된다. 유제학 기자 yunh@buddhaga.com



부처님 국적을 두고 일당들을 밟아 불상을 들어올리고 '메이드인 차이나'를 외치는 순간 불상은 굴러 떨어진다.

10년간 최다연구 문학작품은?

만해스님의 '님의 침묵'

이선영 교수 논문 지난 100년간 가장 많은 비평대상이 된 한국 문학작품은 만해 한용운스님의 시 '님의 침묵'이었다.

이같은 사실은 이선영 연세대 명예교수(국문학)가 최근 <한국문학사적 유형별 총목록>(한국문화사 7권)을 편찬하면서 이를 토대로 작성한 논문 <20세기 한국문학에 대한 전문가의 반응>으로 밝혀졌다.

이교수가 20년간의 작업 끝에 펴낸 <한국문학사>는 1895년-1999년까지 발표된 남북한의 문학관련 저서 논문 평론 7만3천5백41편을 연대 장르 저자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 교수는 이 가운데 평론가와 연구자들이 쓴 작가론 작품론 편수를 통해 20세기 한국문학의 선호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전문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20세기 한국 문학 작품은 '님의 침묵'(한용운, 83건), '토지'(박경리, 80건), '삼대'(염상섭, 75건), '날개'(이상, 72건), '창록집'(박두진, 63건), '무정'(이광수, 6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가장 선호하는 작가에는 이광수가 1위(688건)로 꼽혔으며, 이상(625건), 김소월(499건), 염상섭(480건), 채만식(425건), 한용운(424건), 서정주(4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논문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선호한 작품 22편중 '시(4개)와 소설(18개)이 전부를 차지하고, 비평론이나 문학론이 전무한 점, 시와 소설의 경우 광의의 모더니즘과 리얼리즘 계열 작품이 각 9편씩 총 18편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점은 국문학 연구의 편식 양상을 드러낸다'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현대불교와 하나은행이 제휴한 불자신용카드

부다피아하나카드 발급 개시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
주유할인 서비스(S-OIL)
무료보험 서비스 - 휴일 상해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항공상해보험, 장소나안심보험

롯데월드 무료입장 서비스
스피드카드론

초년도 연회비 면제

■ 접수 및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불교카드사업단 / 대표 : (02) 6678-1115~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 5동 908번지 현대월드타워 1115호

하나는행비자카드 특전+재물보시!

부다피아하나카드엔 특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 보시금은 현대불교신문 불교카드사업단과 함께 접수 한 카드발급 부분에 한해서 적용되며 (이은혜나 기타 카드(대리점 제외) 현대불교신문 불교카드사업단) 통해 발급 받은 부다피아 하나로 6개월 이내에 현금서비스를 포함하여 5만원 이상의 사용 실적이 있을 경우 7000원이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 연꽃마을, 소백새마을, 시화복지법인 등과 같은 복지 단체에 사용됩니다. ● 군법원, 교도소, 병원 등 부처님의 법음이 더욱 필요한 곳에 봉사금으로도 쓰입니다.
- 결식아동돕기 등 아동 재활을 위한 기금으로 쓰입니다.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관리 됩니다.

- 현대불교신문은 불자여러분이 보여주는 보시행의 뜻과 힘을 받들어 기금운영 상황을 현대불교신문 지면이나 이메일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 관리합니다.

4570 4712 3456 7890
RANA 03703 VISA

